



생 명 가 족 도 서 관

#서울 성북구 #인건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생명가족도서관은 모두가 함께합니다.

생명가족도서관은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온 가족이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공간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민독서동아리, 책놀이 활동, 독서문화축제, 작가와의 만남, 영화 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가족도서관의 가장 큰 매력은 마을주민사서입니다.

지역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며, 전문사서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의 안내 데스크 역할,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평가, 도서관 환경미화까지 도서관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고민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가족도서관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생명가족도서관의 2017 년은 어떠했나요?



그동안 가장 큰 고민이었던 도서관 내 바닥 균열 공사와 프로그램실 바닥 난방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장 컸습니다. 공사를 위한 준비로 도서관을 정리하며 하루 임시휴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자분들도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변화를 누구보다 반가워하시며 기꺼이 양해해주셨고, 공사 전후로 마을주민사서들과 봉사자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사 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낮은 책장에 소파쿠션을 추가로 설치하여 아이들이 편하게 앉기도 하고, 누워서도 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구성되어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꼭 필요했던 북트럭과 성인도서관에 책장을 추가 구입하면서 그동안에 책장이 부족하여 정리되지 못했던 도서들이 정리되고, 이용자분들은 더욱 쉽게 도서를 찾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트럭이 부족하여 책을 읽고 난 후 아무 곳이나 놓았던 책들을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책을 읽고 난 후 북트럭에 놓으며 책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더욱 새로워진 도서관에서 부모님의 무릎에 앉아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며 더 좋은 모습들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모든 항목이 너무 필요한 지원이었고, 아주 소중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원해주지만, 도서관에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나 긴급지원119사업은 달랐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가장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고, 정말 필요한 사서 인력지원을 통해 더 많은 마을주민사서를 양성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가족도서관의 2018 년은 어떠한가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도서관은 이제 단순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책을 보고 책 내용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정감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열굴만 알았던 아이들도 도서관에서 만나면 환하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며 우리아이처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일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한다는 모습이겠죠?

2018년도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진 도서관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을 마을주민사서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책보수동아리를 만들어서 찢어지거나 파손된 책을 새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더욱 책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모두가 함께 보는 책이니 더욱 잘 유지하고 함께 보기 위한 주민들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슈퍼맨이자 만능일꾼들 이십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포근하게 아이들을 맞이 해주어야 하고, 때로는 수많은 도서들을 번쩍 번쩍 나르며 정리해야 하는 힘꾼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도서관에 고장 난 곳이 생기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후원자분들을 모집하고 발굴해야 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함께 운영해줄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하고 교육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도서관이 키우는 아이들, 정말 멋지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그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활동들을 더욱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분들 파이팅입니다!